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20. 1. Vol 262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2020년 첫날 아침

새날의 첫 아침 깨우는 태양
바다는 태양의 황홀한 눈짓에
어제의 고단한 하루를 삼킨 채
검푸른 고요를 찬란히 흔든다

목울대 넘기지 못한 속울음
가슴에 묻었던 빛바랜 그리움
반목에 쌓였던 양금의 시간들
바람의 휘사에 추스르는 순간

태양이 일러주는 침묵의 갈망
소통과 지혜로 신뢰받는 의정
화해와 용서로 감동주는 의회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충청북도의회

새롭게 솟구치는 존재의 희열
고요를 달리는 지구별 생명들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문 열어
희망을 잉태하는 2020년 첫 아침



심 억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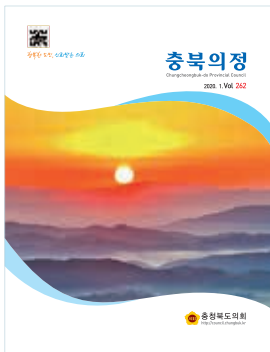
- 문예한국 등단
- 시 집 : 『물 한 잔의 아침』
- 수필집 : 『억수로 좋은 날』, 『여물지 않은 곡식은 버려진다』
- 청주문협회장, 중부문화회장, 충북시인협회장, 충북시사랑회장 역임,
10회 청주공예 비엔날레 문학감독 겸 대표감독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20. 1. Vol 262

Contents



월악산의 일출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경계를 이루는 월악산은 충주호에 바로 인접해 있고, 동북쪽에는 소백산국립공원이, 남서쪽으로는 속리산국립공원이 있다. 월악산은 상봉인 국사주봉에서의 탁 트인 일망무제의 풍경이 예로부터 유명하다.

- 04 | 신년사
- 05 | 충북도의회 2020년도 의정방향
- 06 | 충북도 · 도교육청 2020년도 새해 예산 확정
- 08 | 제377회 정례회 주요내용
- 09 | 충북의 공업용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문
- 10 | 결의대회 · 인사청문회
- 11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12 | 정책 토론회
- 13 | 우수 의정활동상 수상
- 14 | 의원 연구모임
- 15 | 각 상임위원회 활동상황
- 22 | 5분 자유발언
- 26 | 제377회 정례회 주요 처리의안
- 28 | 의정활동 이모저모
- 30 | 의원논단

- 발 행 일 2020년 1월
- 발 행 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장선배
- 발 행 처 충청북도의회
- 구독신청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전 화 (043) 220-5123 ● F A X (043) 220-5119
- 홈페이지 <http://council.chungbuk.kr>



도민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하나가 되는 든든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는 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새해는 ‘소통하는 의정, 공감 받는 의회’를 목표로 출범한 11대 충청북도의회가 하반기 여정을 시작하는 해 입니다. 충청북도의회는 그동안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면서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로 새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을 다시 한 번 가슴깊이 새기며 새해에도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을 계기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책임 있는 견제와 감시로 참다운 의회상을 실현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건전한 비판뿐만 아니라 산적인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힘을 합쳐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도의원 모두가 지역발전을 선도해 가는 전략가가 되어, 지역의 굼직한 현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도민의 이익을 위해 함께 뭉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이 같은 의지를 담아

신년화두를 ‘동심동덕(同心同德)’으로 정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도민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함께 나가는
든든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고견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1월 1일

충청북도의회 의장 **장 선 배**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마음으로 충북 미래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

충북도의회는 올 경자년(庚子年) 신년 화두를 “충북도민 모두의 목표를 위해 다 같이 힘쓰고 노력해 나가자”는 뜻에서 ‘동심동덕’으로 정했다.

‘동심동덕’은 어려운 일에 처할수록 이기심을 버리고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노력하면 어떤 어려운 일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도민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올 주요 의정방향을 △도정발전을 견인하는 의정운영 △일하고 연구하는 입법·정책의회 확립 △도민과 소통·공감을 통한 민생중심 열린 의정 실현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으로 잡았다.

도의회는 우선 도정발전을 견인하는 의정운영을 위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상시 집행부를 감시·견제 강화하고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과 KTX오송역, 청주공항 활성화, 수도권 내륙선 국가철도망 건설 계획 반영 등 현안과제 해결과 도정 핵심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도의회는 또 일하고 연구하는 입법·정책의회 확립을 위해 신설된 입법정책담당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학술연구용역, 정책토론회, 연구모임 등의 활성화를 꾀하며 내실 있는 국제교류, 공무원외출장 등을 통해 바람직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민과 소통·공감을 통한 민생중심의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해서는 주요사안 발생 시 해결을 위해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현안을 공유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미디어팀을 신설해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도민과 양방향 소통과 의정홍보를 강화하고 청소년의회교실, 찾아가는 의회교실, 본회의장 공개 등 의정 체험활동 활성화를 통해 열린 의정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우선적 과제를 직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전국 시·도회의의장협의회와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020년도 연간 의회 운영계획〉

월 별	회 기	주 요 예 상 안 건
1월 임시회 (제378회)	1.14.(화) ~ 1.21.(화) (8일간)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안건심의
3월 임시회 (제379회)	3.12.(목) ~ 3.24.(화) (13일간) 누계 21일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안건심의
4월 임시회 (제380회)	4.21.(화) ~ 4.29.(수) (9일간) 누계 30일	■ 안건심의
6월 정례회 (제381회)	6. 8.(월) ~ 6.25.(목) (18일간) 누계 48일	■ 2019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 11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 안건 심의
7월 임시회 (제382회)	7.7.(화) ~ 7.20.(월) (14일간) 누계 62일	■ 11대 후반기 원구성 ■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안건 심의
9월 임시회 (제383회)	9.3.(목) ~ 9.16.(수) (14일간) 누계 76일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 시기·기간 결정의 건 - 감사계획서 수립 ■ 안건 심의
10월 임시회 (제384회)	10.13.(화) ~ 10.23.(금) (11일간) 누계 87일	■ 안건 심의 -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1월 ~ 12월 정례회 (제385회)	11.9.(월) ~ 12.16.(수) (38일) 누계 125일	■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2020년도 추경예산안(도, 교육청) ■ 2021년도 예산안(도, 교육청)
■ 누 계 : 8회/125일(임시회 6회, 69일 / 정례회 2회, 56일)		■ 상반기 : 4회/ 48일(임시회 3회, 30일 / 정례회 1회, 18일) ■ 하반기 : 4회/ 77일(임시회 3회, 39일 / 정례회 1회, 38일)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제377회 정례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확정했다.

충청북도 새해 예산

충북도 2020년도 예산 5조 967억원 확정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 등 43개 사업 91억원 삭감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제37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도의회는 먼저,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충북도 예산안의 총 규모를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지난해보다 5270억원이 증액된 5조1059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8% 증가한 4조527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0% 증액된 5786억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도보다 1.6%인 148억원이 감소한 8976억원으로 편성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 예산종합심사에서 2020년도 충북도 재정운용의 경상경비 최소화와 투자재원 극대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또

〈충청북도 2020년도 새해 예산〉

(단위 : 억원)

회 계 별	제 출 예산액	계수조정결과		확 정 예산액
		증(내부유보금)	감	
총 계	51,059	91	91	51,059
일반회계	45,273	88	88	45,273
특별회계	5,786	3	3	5,786

는 전액 삭감했다.

일반회계는 △본회의장 전자투표 시스템 유지보수 △정부합동평가 역량강화 컨설팅 △청소년활동 통합정보 포털 사이트 구축 △충북방문 주요외빈 의료체험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 △제10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개최 △지역생산물 애용 충북사랑 운동전개 △해외 투자유치 외빈초청 △혁신창업 페스티벌 개최 △반도체산업 박람회 개최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국제화장품박

람회참가 지원 △대전천 대전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 △유망바이오 기술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등 38개 사업 88억8647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특별회계는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설치 △현장지휘관 숙소 조성 △관용차량 주차 캐노피 설치 △덕산안전센터 분진 방지막 설치 등 4개사업 2억9800만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연구 800만원을 삭감하여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내부 조정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역을 존중하며 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부실한 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 보훈회관과 노인회관 및 노인종합복

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시급성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또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은 사무국 인력을 증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요구액 15억1003만2000원 중 WMC 컨벤션 2억원,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5억원 등 총 7억원을 승인했다.

농민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정보지 등 예산 중복 지급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검토를 통해 향후 농민단체가 자생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1년 예산 심사시 삭감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도의회는 끝으로 2020년도 예산이 164만 도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투명하고 낭비없이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충청북도교육청 새해 예산

도교육청 2020년도 예산 2조7178억원 확정

학교자율운영지원단 등 30개 사업 64억원 삭감

충북도의회는 충청도교육청의 「2020년도 새해예산」을 2조7178억원으로 확정했다.

충북도교육감이 도의회에 제출한 2020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1.3%인 339억원이 증액된 2조7242억원이다.

또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새롭게 편성된 충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2020년도 운용계획안은 2019년도에 출연금과 금융기관예치 이자수입 등 기 조성된 1531억원과 이를 금융기관 예치한 이자수입을 계상한 22억원을 포함한 1553억원이다.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며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사업의 중복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심사에 임하여 학교자율운영지원단 등 30개 사업 64억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주요 삭감내역은 △우수학교스포츠클럽운영지원 2억4720만원 △청주교야구부버스교체 1억9944만원 △통

〈충청북도교육청 2020년도 새해 예산〉 (단위 : 억원)

회 계 별	제 출 예산액	계수조정결과		확 정 예산액
		증(내부유보금)	감	
교 육 비 특별회계	27,242	64	64	27,178

합버스보호장구(카시트) 5388만원 △학내망개선 53억4884만원 등이다.

도의회는 심사에서 △순세제잉여금을 본예산에 과소편성하는 점 △해마다 정리추경시 과다 편성된 인건비를 감액하고 있는 점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 계상한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지적하며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구했다.

또, 2020년도 충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금융기관예치 및 관리로 22억원이 증액된 1553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추경 및 2020년도 예산 의결 토론회·연구활동 등 실시... 대안제시 통한 현안해결 집중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제377회 정례회를 열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상정된 현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43일간의 일정으로 제377회 정례회를 열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또, '공업용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 관련 중앙부처에 이송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 의원 연구활동, 연구용역 보고회 등을 실시하며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각종 안건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등 총 40건의 민생 현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11월 8일 실시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77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기타 부의 안건을 의결하고 박성원·허창원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여 △획일적인 학교 통폐합 정책 폐기 △지역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도록 역량 결집을 주제로 시정·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2일 실시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임영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과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또, 이상욱·이상정·정상교·육미선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여 △공공 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공모사업 충북도 적극 참여 △충북혁신도시 본성고등학교 설립은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도립도서관 설립으로 충북 균형발전 시작하자 △지역인재육성 헛구호!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시책 마련 등을 시정 및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실시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육미선·박형용·김기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과 충북도

지사와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송미애·이옥규·임영은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여 △도민을 위한 혁신 지향적 조직개편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발전적 해체 △충북의 공업용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시정 및 개선을 촉구했다.

개회 마지막 날인 지난해 12월 20일 실시한 제4차 본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장이 제안한 「충북의 공업용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비롯한 10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박상돈·허창원·이상식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여 △충북도청 노인장애인과 분과 및 증원 △더 능동적인 조직으로 변해야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언 등을 주제로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며 2019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장선배 의장은 “올 한해 도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를 통해 도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각종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말하며 “새해에도 충북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도민과 소통하면서 늘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공업용수 배정량 부족... 정부차원 대책 세워야” 부족한 공업용수 확보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제37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우양)가 제안한 ‘충북의 공업용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환경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이송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충북도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투자유치 활동이 향후 공업용수 부족으로 기업유치 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북도의 공업용수가 2021년 15만t, 2023년 29만2000t, 2025년 33만7000t이 부족함에도 전국 2, 3위 저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충주댐과 대청댐에서

도내로 공급하는 용수의 배분량은 약 43.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타 시도에 공급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의회는 향후 지속적으로 공업용수가 부족할 경우 충북도는 기업유치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발생과 수계 불균형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가 조속히 ‘2025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충북의 공업용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공업용수 배분시 댐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수계불균형을 해결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충북의 공업용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문

충북은 공업용수 배정량이 부족하여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가 어려울 지경에 처했습니다. 2021년 15만t, 2023년 29만2000t, 그리고 2025년이면 33만7000t이 부족할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충북은 공업용수 부족에 대해 수차례 환경부를 방문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우리 충북에는 전국 2, 3위 저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고 두 댐의 저수량은 42.4억t으로 이는 수도권 용수 사용량 511일 분량에 해당되는 많은 양입니다.

그러나 충주댐과 대청댐이 우리 지역에 공급하는 용수의 배분량은 약 43.6%로 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량이고 나머지는 타 시도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댐 주변 및 상류 지역은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에 커다란 손실을 미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규모는 약 5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용수부족으로 기업유치가 어려울 경우 우

리도의 경제적 손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수계 불균형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환경부는 댐 용수배분 등을 담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난색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2035년 계획 수립시에 반영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이러한 행태는 현행 산업단지 개발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도법과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용수량 산정방법만 고수하고 있으며 우리도의 현재 상황을 외면해 버린 것으로 즉각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환경부는 조속히 2025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충북의 공업용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공업용수 배분시 댐으로 인해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수계 불균형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9년 12월 20일
충북도의회 의원 일동



‘수도권 내륙선’ 국가철도망 건설계획 반영 공동 결의대회 동탄~안성~국가대표선수촌~충북혁신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 등 6개 도시·군 의장단이 12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수도권 내륙선’ 건설사업 반영 촉구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과 청주시의회 하재성 의장, 진천군의회 박양규 의장은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등 6개 도, 시·군의장단은 지난해 12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에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국제공항) 건설사업 반영을 촉구하는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

국제공항)의 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수도권 내륙선’은 경기도 동탄(화성시)~안성~진천을 경유해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총 78.8km의 일반철도 구축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약 2조5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완공 시 동탄~청주공항까지 약 34분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충북과 경기도 6개 지방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과 중부내륙을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선’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과 교통수요 분담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히며 “6개 도, 시·군 자치단체장도 수도권 내륙선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우리나라 철도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철도운영 효율화 방안 등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도의회 산경위, 충북테크노파크 신임 원장 인사청문회 경제분야에 대한 전문성·역량 및 비전·도덕성 등 검증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11월 19일 송재빈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우양) 의원 6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개인경력, 병역, 부동산, 세금 납부 여부 등의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업무에 대한 전문성, 정책분야, 조직관리 및 사회적 책임, 재무건전성, 지역현안 등에 대한 부분은 공개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청문회는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을 듣고 질의·응답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후보자에 대한 충북TP 경영소신과 포부, 국비확보와 조직관리, 우수인력 확보, 명예충북도민 선정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송 후보자의 전문성과 역량, 비전을 확인했다.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직무수행계획에 충북TP의 역할과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뿌리산업 육성

의 중요성, 국비확보 및 인재 유출방안, 이직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꼼꼼히 물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박우양 위원장은 “보다 실질적인 검증을 위하여 인사청문의 법적 시행근거 마련, 인사검증을 위한 면책특권 보장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9일 충북TP 신임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도덕성, 전문성, 경영능력 등을 검증했다.

주요 시책사업 면밀히 분석... 강도높은 사무감사

집행부에 490건(충북도 407건·도교육청 83건) 시정·처리요구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충북도 및 직속기관, 민간위탁기관, 충북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 6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주요시책 전반에 대한 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책운영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처리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사전 간담회, 전체의원 연찬회, 워크숍, 각종 의원연구모임과 현장 확인을 통한 사전분석을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보다 세심한 감사를 단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감사비법과 전문성 등을 강화해 지난해 보다 3건이 증가한 총 490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원 의정활동을 지역주민까지 홍보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연구용역 결과물 체계적 관리 및 도·의정에 반영되도록 소관부서 배부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집행부의 대규모 행사 감안 △연찬회 명칭 세부일정에 맞게 수정하고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관련 강의 포함되도록 계획수립 시 검토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격려 분기별 시행방안 마련 등 18건을 지적하고 시정·처리요구 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성인지 교육에 고위직이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 △교육행정협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자와 협의하여 개선방안 마련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전문 상담인력 배치 검토 △2020학년도 신입생 등록률 향상을 위해 최선 △가족친화기관 인증 준비 철저 △데이트 폭력예방 교육대상 확대 등 105건을 지적하고 시정·처리요구 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도민들이 도정이해에 오해가 없도록 비판성 보도 대응 철저 △공공기관 채용실태의 정기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충북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현장을 제정하고, 인권센터장을 전문가로 영입하는 방안 마련 △세계무예마스터십 성과분석 용역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각 위원회별 지적사항(시정·처리요구)

위원회별	계
계	490
의회운영위원회	18
정책복지위원회	105
행정문화위원회	39
산업경제위원회	186
건설환경소방위원회	59
교육위원회	83

통해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 등 39건을 지적하고 시정·처리요구 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태양광에너지 클러스트 조성, 소방복합치유센터, 방사광가속기 유치사업 등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 3권에 설치될수 있도록 개선 △농업기술원의 국비 반납 최소화 되도록 개선 △충북신용재단 모든 대출이자율 차이 없도록 개선 △지식산업진흥원 회의실내 방송시설 조속히 개선 △경제통상국 관련 업무의 통일성·전문성을 위한 전담사무실 설치 노력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도내 기업 생산품 판로확대를 위한 수출증대 방안 마련 등 186건을 지적하고 시정·처리요구 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도민안전보행 농기계사고 항목 추가 및 준비 철저 △어린이 보호구역 저화질 CCTV 고화질 개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건물번호판) 망실 및 훼손 해결 △화장품엑스포 현장계약과 실질적인 수출연계 관련 자료 데이터 관리 철저 △의용소방대 위원회 활성화 및 관리 철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 차질 없도록 효율적인 보급방안 마련 등 59건을 지적·처리요구 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구매금액 등이 포함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 수립 및 구매목표 달성 노력 △장애인 기업 제품 의무구매 비율 준수 △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지역 다양한 연령대의 교사배치 개선방안 마련 및 타 시·도와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폐교의 무조건적인 대부를 지양하고, 지역사회나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는 폐교 활용 방안 마련 등 83건을 지적하고 시정·처리요구 했다.



충북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노인상담의 중요성 등 제시 … 체계적 준비 필요 강조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11월 8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충북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충북고령친화도시조성연구회(대표 육미선 의원)는 지난해 11월 8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청대학교 김준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충북 고령친화도시 조

례제정 의의와 방향’이란 주제발표와 대표를 맡고 있는 육미선 의원의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조례안’ 설명에 이어 홍석호 청주대학교 교수, 박정희 서원시니어클럽관장, 전문정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과장과 박원준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용환 박사는 발제문을 통해 “최근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자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참여가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미선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노인일자리 활성화방안, 성공적인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상담의 중요성 등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내용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례안에 담아 내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후 도의회 의원 공동발의로 충북고령친화도시 조례제정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정책 추진방안 모색 토론회 · 홍보 캠페인 등 추진 미세먼지 시즌 대비한 충북도의 선제적 역할 담당 등 제시

충북도의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의영)는 지난해 11월 1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의원, 충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북연구원 관계자,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생각과 정책 추진 방안 모색 합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현식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신승용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과 서울시 미세먼지 대응사례)과 배민기 충북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미세먼지에 대한 충북도민의 인식분석)의 주제발표에 이어 최경천 특위 부위원장, 권설아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한아름 미세먼지 전문강사, 박대순 충북도 기후대기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가기상위상센터 등 우리도가 가진 우수한 기상과학 기반을 활용해 미세먼지 저감에 충북도가 선

제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한편,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미세먼지 합동 정책토론회에 이어 지난해 12월 16일 청주 성안로 일원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실천’을 주제로 합동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충북도의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미세먼지 정책 추진방안 모색 합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영탁 의원 '2019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 대상' 수상



오영탁 의원은 지난해 11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글로벌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한민국 혁신성장 브랜드 성장 동력 가치에 기여한 공이 큰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 등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충북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자치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상정 의원 지방농정분야 최우수 지방자치 의원상 수상



이상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 수원 농민회관에서 개최된 '2019 대한민국 농업대상 시상식'에서 지방농정분야 최우수 지방자치 의원상을 수상했다.

이상정 의원은 AI 근본적 해결을 위한 오리휴지기제 입법 발의, 전국 최초 농축산가격안정 기금조례 주민발의, 충북 최초 학교급식지원 조례발의 등 농업·농촌 및 지역 사회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황규철·윤남진·연종석 의원 민주평통 '대통령상' 수상



황규철·윤남진·연종석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2019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표창은 지역사회에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활동과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한 공이 큰 협의회·자문위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으로 남북화합과 평화통일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와 지역사회 통일 역량강화 노력을 인정받았다.

행정사무감사 최우수 의원에 육미선 의원, 허창원·이상식·김기창·박성원 우수의원 수상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돈) 우수 상임위원회 선정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24일 도의회 7층 회의실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대표 황경선)로부터 최우수·우수 의원과 우수 상임위원회로 선정되어 수상했다.

최우수 의원상은 육미선 의원이, 우수 의원상에는 허창원·이상식·김기창·박성원 의원이 수상했으며, 우수 상임위원회상은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돈)가 수상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운영실태 미흡 체험마을 활성화 대책방안 모색 촉구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우양)는 지난해 11월 26일 ‘충청북도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실에서 실시된 연구용역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송완구 지역아카데미 본부장은 체험마을 활성화 전략으로 △평가 지표개발 △활성화 계획 수립 △마을 학습동아리 운영 △마을운영자 교육과 운영 매뉴얼의 개발 △관련 조례 개정 △행정관리 매뉴얼 개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시범사업으로 전문사무장 채용, 대학생 학점 인턴제, 유희시설 활용, 마을코디네이터 제도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를 제안한 박문희 의원은 “용역 수행기관인 지역아카데미가 도내 각 시군별 대표체험마을을 방문해 사무장과 담당 이장을 면담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제

안했다”며 “관련 부서에서는 제안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해 운영실태가 미흡한 체험마을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7월 9일부터 4개월간 진행했으며 지난 10월 25일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대책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의원 연구모임 ‘충북지역 복지교육 발전방안 연구’ 활발

‘복지교육협의체’ 구성 · 학년별 복지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제시

충북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충북복지교육 연구회(대표 이숙애 의원)는 지난해 11월 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지역 초등학교 복지교육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결과 보고회’를 실시했다.

이숙애 의원의 진행으로 실시된 연구결과 보고회는 공동연구위원으로 참여한 박문희 · 박성원 · 육미선 · 윤남진 · 이상식 · 이수완 · 이의영 · 최경천 · 하유정 · 허창원 의원 등 30여명의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화정 책임 연구원은 연구결과로 △충북도와 충북교육청 복지교육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장애 이해 교육을 포함한 사회복지교육을 법제화할 수 있는 조례 제정 △학교에서 학생들의 복지교육과 자원봉사활동을 담당하는 ‘복지교육협의체’ 구성 △초 · 중 · 고등학교에 맞는 학년별 복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의 관련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숙애 의원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행복 복지 교육을 위해 실현가능한 정책들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1월 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지역 초등학교 복지교육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결과 보고회’를 실시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 예산안 심사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 · 운영상 미비점 등 보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제377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지난해 11월 8일 개최된 제1차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를 건을 심사하고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안 가결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11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다양한 의결들을 제시했다.

특히 “시·군에 소재한 지역신문에는 의정활동 홍보가 저조하여 주민들이 도의회에 관한 정보를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2020년부터는 도의회의 의정활동 상황을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는 등 총 18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26일 개최된 제2차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세입예산은 기

정예산 대비 2억7445만원이 감소된 2억1131만3000원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353만원이 증액된 113억6940만4000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지난해 12월 2일에 개최된 제3차 위에서는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과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심사는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총 8회에 걸쳐 125일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인 1억2315만2000원이 감액된 111억370만7000원이 계상된 것으로, 대부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연구활동지원, 노후장비 교체, 입법 및 특위활동 지원 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판단했으나 본회의장 전자투표 시스템 유지보수비 836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했다.

지난해 12월 16일에 실시한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378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등 상정된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현안을 협의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 예산안 심사

직장내 괴롭힘 방지,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촉구



위원장
박상돈 의원



부위원장
최경천 의원



박형용 의원



심기보 의원



육미선 의원



이상욱 의원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돈)는 제377회 정례회 기간 중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현안을 심사·의결했다.

또,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소관부서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직장내 괴롭힘 방지금지를 위한 예방교육 철저와 도내 의료원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해소 등 총 105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도출했다.

지난해 10월 8일 실시한 제1차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고 지난해 11월 26일 실시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잘못된 비용추계로 소극적인 기금운용이 이뤄진 점과 최근 3년간 명시이월액이 급증한 사례 등을 지적하며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3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전 행정절차가 미흡한 각종 사업과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된 저조한 실적 등을 지적하고 전체 사업 중 불요불급하거나 예산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는 10개 사업에 3억3566여만원을 감액했다.

또한, 박형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충북도 보조기구센터 운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내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정착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 가결했다.

위원회는 또,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과 「노인호보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각 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각각 원안 가결했다.

한편, 박상돈 위원장은 “2019년도 계획한 각종 사업들도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전원표)는 제377회 정례회 기간 중 공보관 등 7개 소관 부서(기관)를 대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 · 의결했다.

전원표 위원장은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지적사항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운영수당이나 실비의 현실화가 절실하며, 도민감사관에 대한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는 등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허창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대책 부족을 지적하고, “각종 행사성 경비와 비교해 예산이 균형적으로 쓰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예산집행 시 도민의 입장에서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연철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계무예마스터십 성과분석 용역결과에 대해 도민의 시각과는 다르게 전 부분에서 높은 성과가 도출되었음을 지적하며, “공정하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상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독립도서관 건립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며, “도서관은 단순 도서대출 뿐만이 아니라 지역 문화의 허브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송미애 의원은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감사관제 교육 및 워크숍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를 묻고, 향후 책임감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인적구성을 주문했다. 또한 민간단체에 대한 공무원의 감질을 근절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옥규 의원은 문화재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연구원 · 문화재단이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없는 지 점검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당부했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이 장르별로 차이가 있는 원인을 점검하며 균형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또,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 처리요구사항 39건을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충청북도 공무원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등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청도지사가 제출한 안건들을 심사 · 의결했다.



위원장
전원표 의원



부위원장
허창원 의원



송미애 의원



연철흠 의원



이옥규 의원



정상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 등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 예산안 심사

충북도 경제활성화 위한 농 · 산업 지원책 마련 주문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우양)는 제377회 정례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충북테크노파크 신입원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2109년도 3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등을 심사 · 의결하며 2019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먼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실시한 경제통상국, 농정국, 충청북도기업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400건의 감사목록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다.

산경위는 “이번 감사에서는 경기침체로 골목상권 등 자영업이 꺾고 있는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협회를 조직해 교육할 것과 컨설팅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강조하고, “충북도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데 최근 공업용수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충북도가 ‘유기농특화도’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유기농업의 면적감소와 지원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품목별 현장 맞춤형 농업컨설팅 실시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주문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26일 실시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2019년 사업의 철저한 마무리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안배,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 타당성과 신규 계상사업의 효율성을 집중 질의했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실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경제통상국에 대해 “충북도의 투자유치와 전략산업 분야 선도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사업 발굴, 도내 기업 경제활동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농정국에 대한 심사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측면을 인정하고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유사사업을 잘 구분해 정책의 혜택이 한쪽에 편중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며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정책 효과가 미비한 부분 10건에 대해 20억 9300만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위원장
박우양 의원



부위원장
임영은 의원



박문희 의원



이상식 의원



이상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충북테크노파크를 방문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설을 점검 한 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제3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 예산안 심사

도민 안전과 건강 보호에 행정력 집중지원 당부



위원장
이수완 의원



부위원장
윤남진 의원



김기창 의원



연종석 의원



오영탁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1일 미원면 미동산수목원 특성화사업장, 내수읍 수소충전소, 진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수완)는 제377회 정례회 기간 중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또, 김기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과 오영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1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로 미동산수목원, 내수 수소충전소, 진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도민건강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도민안전보험 농기계사고 항목 추가 및 준비 철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행정재산 사용료 과오납금 반납 추진, 멧돼지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한 멧돼지 포획 후 복잡한 매립 과정을 개선, 의용소방대 위원회 활성화 및 관리 철저 등을 지적하며 문제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실시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은 불법 주·정차, 과속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과 스쿨존 내 통행차량의 속도 저감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히며 “다양한 해양·육상 안전교육을 제공해 생활속 안전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재난현장 드론 철저히 준비,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효율적 운영, 서충주119안전센터 설치 문제점 보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적극 반영, 현암~지산 지방도 확포장공사 추진 철저 등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 묻고 정확하고 면밀한 예산편성을 통해 적재적소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

제3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 예산안 심사

장애학생 신속대피 위한 특수학교 시설보안 강화 촉구



위원장
이숙애 의원



부위원장
서동학 의원



김영주 의원



박성원 의원



이의명 의원



황규철 의원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일 (가칭)청주특수학교 설립 부지를 방문해 현황을 듣고 시설을 둘러본 후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제377회 정례회 기간 중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1월 22일까지 8일간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과 각종 언론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장애학생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특수학교의 시설 보안 등 25건을 시정·개선 요구했다.

또, 라돈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사용기준 마련, 학내망 사업 및 정보화 사업 집행 방식 개선, 소규모 학교의 학교재배치를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전문적인 TF팀 구성 등 65건에 대해 건의·주의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 11월 26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을 심사하고 12월 3일 실시한 제2차 위원회에서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난해 12월 4일 실시한 제3차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이날 심사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충북도교육청이 전년도 예산 대비 1.3%인 339억1248만6000원 증액된 2조7242억1304만8000원을 계상했으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대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거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검토가 필요한 총46개 사업에 83억7040만5000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다.

위원회는 또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형용)는 제377회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어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실시한 제1차 위원회에 상정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2%인 97억원이 증액된 4조769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0%인 352억원이 증액된 6199억원으로, 이견 없이 원안 가결했다.

지난해 11월 28일에 열린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인 521억원이 증액된 3조1306억원이며,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으로 1531억을 편성한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제3차~제5차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했다.

제출된 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해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11.8%가 증가한 4조527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0%가 증액된 5786억원이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대비 1.6%가 감소된 8976억원이다.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진행된 심사는 예산안 조정에서 일반회계는 본회의장 전자투표 시스템 유지보수 등 38개 사업 88억8647만원을, 특별회계는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등 4개사업 2억98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연수비 800만원을 삭감해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내부 조정했다.

특위는 또,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제6차~제7차 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인 339억원이 증액된 2조7242억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융기관예치 이자수입 등 전년대비 22억원이 증액된 1553억원으로, 학교자율운영지원단 등 30개 사업에 64억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획일적인 학교 통·폐합 정책을 폐기하자



박성원 의원
 (교육위원회)

충북의 인구수는 증가하는데 10세~29세의 청년층 유출이 증가하며 교육문제로 인해 충북을 등지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미달학생과 고등 학교 학업중단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학생 스스로 평가하는 교과과정 만족도가 4년 연속 전국 평균이하로 나타난 것은 4차 산업에 걸 맞는 창의적 교육프로그램,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혁신적인 교과과정 등을 준비하지 못

한 교육당국의 안이한 대처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반적인 부정적 교육지표 현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를 통폐합 대상학교로 선정하는 기존정책 폐기입니다.

둘째, 지역교육공동체 구축과 함께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이 반영된 '작지만 강한 학교'라는 새로운 학교 운영 모델 개발입니다.

셋째, 지역현실에 맞는 교육과정개발, 소규모학교들의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 등의 대안개발을 촉구하며, 통폐합 학교지정과 예산지원 제한에 따른 소규모 학교의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지역사회 미래를 견인할 정책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을 촉구한다



이상욱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현재 충북에는 재활입원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17개소가 있지만, 대부분 성인대상 재활병원으로 사고로 인한 휴유증 치료를 주로 다루고 있어, 영·유아기나 학령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재활치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린이재활치료 서비스제공을 위해 권역별 의료시설 확충을 국정과제로 정했고, 2022년까지 공모를 통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경남권·충

남권·전남권에 각각 1개소씩 건립하고, 공공 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경북권·강원권·충북권·전북권에 각각 1~2개소씩 총 6개소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충북은 설립비용의 50%인 36억의 도비부담과 적자운영이 예상된다는 이유 등으로 재활의료센터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권, 특히 어린이 건강권에 대해 경제적 효율성의 잣대를 대는 것은 복지사회구현을 추진하는 정부시책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도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공공보건의료정책을 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충북혁신도시 본성고 설립은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충북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음성군·진천군 경계지역에 도시계획에 의해 조성된 도시로 도시의 필수요소인 학교설립도 함께 추진돼 본성고 터도 확보됐지만 지금까지 빈터로 남아 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제까지 2023년도 개교를 공식화해 발표했고, 2022년까지 혁신도시 고등학생들이 주변 타 지역으로 입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오히려 2023년 개교를 1년 앞당겨 2022년

개교로 하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으나, 지난해 8월과 10월에 있었던 교육청 자체투자심사가 연속 통과되지 못하고, 재검토로 심사되어, 현재는 2023년 개교는 커녕, 2024년 개교도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혁신도시의 학부모들은 본성고 설립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교육청은 비상외 각오로 본성고 설립의 대안을 만들어, 자체투자심사와 내년 4월의 중앙투자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며, 충북도에서도 본성고 설립문제로 혁신도시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충북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본성고에 대한 투자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본성고 설립이 반드시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립도서관 설립으로 충북균형발전 시작하자



정 상 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충북의 공공도서관은 45개소로 우리나라 전체 공공도서관 1042개의 4.3%에 해당하고, 인구 66만여 명의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국 광역도 중에서 최하위에 속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전국 광역도 중에서 도립도서관이 없는 곳은 강원도와 충청북도입니다.

게다가 현대 도서관은 도서대출 기능뿐만 아니라 공연, 세미나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장소까지 제공

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이 도서관을 통해 정보를 제공 받고 소통을 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미래형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충북인구 중 청주인구 비중이 52%가 넘습니다. 충북도는 도내 인구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첫걸음으로 북부지역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충주시에 도립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충북도는 도민에게 도립도서관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충북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립도서관을 충주지역에 건립하여 서울이나 수도권에 차별을 받아온 충주시민이 충북에서조차 비칭주권 차별로 또 다시 소외감이 생기지 않도록 과감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마련을 촉구한다



육 미 선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충북학사 동서울관은 지난해 10월 공고를 통해 신규직원 8명을 채용했으나 이중 주소지가 충북인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지만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출연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제도 강화의 이유에 지방대학, 수도권 외 지역출신의 차별

해소 목적이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충북도 출자·출연기관부터 지역인재 가산점제 도입 등의 지역인재 선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인재 육성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나 협의회는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충북 청년들의 타시·도 유출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출자·출연기관 직원 채용에 지역인재 가산점과 의무채용 관련규정이 포함되도록 보완하고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지역 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도민을 위한 혁신지향적 조직개편을 촉구한다



송 미 애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조직은 내·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특히 근래에는 환경의 변화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환경에 맞추어 변화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도 급속한 내·외부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그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 가야하며, 충북도의 조직도 시대와 목표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도의 조직을 살펴보면 환경, 문화예술, 안전분야

에 배치된 공무원 수가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적은데 당장은 실적이 없고 보이지 않는 분야라고 인원과 예산 투입을 소홀히 하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문화예술이 발달한 도시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여들고 지역 총생산량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충북도가 충북경제 4% 달성과 미래인재 육성을 외치며 충북의 미래만을 이야기할 때 정작 도민안전·환경·문화예술을 도외시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안전·환경·문화예술을 위해 조직을 재설계하고 예산을 투입하길 요청합니다. 그리하면 인구유입은 물론, 관광활성화로 인한 경제성장도 순조로울 것입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발전적 해체를 촉구한다



이 옥 규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2016년 6월 도비 5000만원 전액을 지원받아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2016년 1회 청주대회, 2019년 2회 충주대회를 치렀으며, 현재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파견공무원 포함 총 14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법령근거도 없이 개인 회사와도 같은 민법상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는 지자체가 법적근거 없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인은 운영비·사업비 전액을 충북도에서 지원받지만 출자·출연법과 충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적용받지 않는 감시·통제의 무법지대에 있는 셈입니다. 충주시에는 지난 2016년에 설립한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의 주요사업 목표는 무예의 철학과 가치전파, 개인과 사회적 발달의 촉진입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사업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제기구와 정부가 승인한 국제무예센터에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업무를 추진하고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발전적으로 해체할 것을 촉구합니다.

충북의 공업용수 부족문제 환경부에 강력 제기해야



임 명 은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충북에는 내륙의 바다라고 불리는 대청댐·충주댐과 크고 작은 저수지·소류지가 산재해 있으나 정부의 이상한 수계논리로 우리 땅에 담수되어 있는 용수를 우리가 먼저 사용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충주댐·대청댐은 2·3위의 저수량을 갖고 있어 한국수자원공사에 막대한 수익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 도는 댐건설로 인해 지방세·농업소득 감소, 개발

규제, 주민 건강·환경피해 등으로 연간 4591억원~5343억원의 피해금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충북이 배정받은 공업용수의 양을 살펴보면 2021년 15만톤, 2023년 29만2톤, 2025년 33만7000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유치는 물론 현재 가동 중인 기업마저 어려움에 처해 생산라인 증설을 포기하고 문을 닫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충북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북도민과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되어 '2025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촉구하여 충주댐 용수를 충북이 우선 사용토록 할 것과 대청댐 용수가 진천군과 연결되도록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관철시켜야 합니다.

충북도청 노인장애인과 분과·증원 필요하다



박 상 돈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현재 충청북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26만1763명으로 전체인구수의 16%를 차지하고, 등록장애인수도 9만7086명으로 6%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충북의 노인 인구 비율은 전국평균보다 높고, 증가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충북의 장애인수도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하면 충북의 장애인수도 실재는 드러난 인원수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는 지난 2013년 예산액 2747억원에서 2019년 현재는 6758억원으로 2.5배 가까이 늘어나 업무량이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요구사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담당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노인장애인 업무를 단일과에서 수행하는 곳은 우리 충북을 포함해 전북, 강원 등 3곳에 불과합니다.

결국 노인과 장애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업무량 증가에 맞춰, 현재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각각 분리하고, 담당 인력의 증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젊은 인재들의 창의력 살리는 능동적 조직으로 변해야



허 창 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공무원 사회는 어느 대기업 못지 않은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 있는 조직입니다. 가끔 젊은 공무원들과 어느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해보면 생각하지 못한 변칙이는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가 많습니다. 이 젊은 인재들이 창의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쉽게도 수동적인 모습으로 주어진 업무만 처리하는 부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제는 공직사회도 변해야 합니다. 주어진 업무만 충실히 처리하는 단계를 넘어 능동적인 모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회는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빠르게 변화하며 혁신을 강조하고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많이 뒤쳐져 있고, 사회변화에 보조를 맞추기는커녕 계속해서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조직이 변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운영 방식이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인재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직원들의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제안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그들의 노력이 인사에 잘 반영돼 최선을 다한 사람이 혜택을 받는 평범한 진리가 통용되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보호 체계적 관리 점검 필요



이 상 식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현재 충북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만 1만4000여명이 넘고,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가 뿌리산업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에서도 이들의 손길은 가뭄철 단비와 같이 여겨지

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는 외국인 인력수요의 증가를 불러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외국이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장기고용, 한국어 교육 등을 통한 문화적 이질감 해소 노력이 필요하며 주거환경 등 기본 생활여건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제 우리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하지 않으면 뿌리산업이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인권의 중요성과 함께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전환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의회

2020년 어서오~쥬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마음으로
충청북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동심동덕(同心同德)은 충청북도의회 신년화두로 도민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는 의미



제377회 정례회 주요처리의안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대표발의 : 임영은 의원)

-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지역별 특화작목의 연구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육미선 의원)

- 충북의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정착을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형용 의원)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및 보조기구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보조기기 지원 및 센터의 운영 등 관련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함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김기창 의원)

-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각종 소방활동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오영탁 의원)

-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공무원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대표발의 : 최경천 의원)

- 충청북도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소속감을 높이고 실질적 처우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 충북도 대상 공무직 : 360명
 - (행정보조 113, 단순노무원 59, 청소·조경·도로보수 188)

충청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조례안

(대표발의 : 이상욱 의원)

-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시행에 따라 충청북도의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인 충북도민의 언어 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8호, 2019.8.6. 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제2호 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개정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준용
 - 차량통행량이 적고 통행속도가 빠르지 않은 축도의 변속차로 최소길이를 완화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연결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정무부지사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행정·경제부지사 소관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며, 경제통상국을 ‘경제’와 ‘산업’분야 전담국으로 분리 신설 하는 등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경제통상국을 ‘경제’와 ‘산업’분야 전담국으로 분리 신설하여 미래 산업 선점 기반을 마련하고 신속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과 소방현장 인력보강 반영 등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신규 위임사무, 위임권한의 변경, 근거법조항 개정, 위임사무명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
-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미비점 보완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를 통해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재해원인 조사·분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학교서열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충주시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 : 의회운영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된 절차의 객관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출 명확화 및 결과보고회 대상 확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무국외출장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 2020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국가정책수요 및 지역현안수요 증원분과 학교신설 등 교육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기관별 ·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함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202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시청자 미디어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 · 의결을 받고자 함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 · 의결을 받고자 함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제출 : 충청북도지사)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충청북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사용료 감면)에 따라,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재)충북문화재단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39조의19에 의거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및 「전국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 휴양시설 공동활용 업무협약」(2019. 5. 22.)에 따른 협약사항을 반영하고, 직속기관 등의 사용대상자 및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기관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충북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지난해 11월 25일 광역의회 중 처음으로 국회 청렴연수원을 방문해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지방의회 행동강령 교육을 받으며 반부패·청렴의지를 다졌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이숙애 위원장, 서동학 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교육 활성화 방안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부로부터 전반적인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충북도의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청주 성안로 일원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실천'을 주제로 합동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장선배 의장과 이숙애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수능시험장인 주성고, 청석고, 일신여고 등을 방문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동의를 건' 등 상정된 안건과 기타 현안 사항들을 협의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1일 괴산군에 위치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을 방문하여 현황을 듣고 시설을 점검한 후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1일 청주 ㈜거름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함께 자립할 수 있는 여건조성 등을 논의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5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원과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9일 국회 정문앞에서 충북, 강원, 경북, 전남 지방분권운동조직, 지방의회 의원 등과 지방세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진천, 괴산, 증평, 음성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 미 애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도시공공디자인을 싹틔우자!

우리는 옷이나 자동차를 구매할 때나 가구를 비롯한 모든 생활용품을 구입할 때 디자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듯 ‘디자인’은 우리 삶에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 왜 사람들이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디자인은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 행복을 주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의 질과 품격을 높여 주는 매우 가치 있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 특허전쟁의 핵심은 바로 ‘디자인’이다. 바로 이는 ‘디자인’의 가치가 기술개발 못지않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디자인 서울’을 외치면서 부시장을 본 부장으로 하는 디자인총괄본부를 설치하고 공공디자인을 서울시 행정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서울은 세계적인 디자인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전주시는 디자인총괄본부를 신설하여 한옥마을 관광화 조성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전주를 다녀갔다. 관광 서울, 관광 전주한옥마을의 시발점이 바로 ‘공공디자인’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공공디자인을 잘 활용한다면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공공디자인’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 충북의 공공디자인은 아직도 걸음마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충청북도의 ‘공공디자인’은 타 지자체에 비해 불모지나 다름없다.

독자적인 ‘공공디자인’ 능력이 부족한 지역을 위해 산업통산자원부는 지역디자인센터(RDC센터)를 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립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충북에는 아직 지역디자인센터(RDC센터)가 없다.

우리지역 대학에는 대부분 디자인학과가 있으나 디자인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충북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에 디자인 전문기업 및 단체가 현저히 적어, 취업을 위해 인근 대전지역 등으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왜 우리 충북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걸까? 충북이 발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 및 기업발전, 그리고 지역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충북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첫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마스터플랜과 로드맵을 수립하여 공공디자인을 충청북도의 행정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공공디자인 사업을 통한 ‘아름다운 디자인 충북 만들기’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붐 조성을 위해 관련 민간지원조직 및 공공디자인센터 등의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행정·의회·민간단체가 포함된 전담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공공디자인은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체감도를 높여 줄 뿐 아니라, 지역 경쟁력제고를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할 것이다. 이제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도시발전을 위해 공공디자인의 싹을 틔워야 할 때이다.

효율적 인사청문회를 위한 제도 개선 선행되어야

박 우 양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의회와 충청북도는 지난해 9월 17일 ‘충청북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 협약서’를 체결하고 충북개발공사 사장과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충북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을 임명함에 있어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충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처음 실시하고 산업경제위원회가 두 번째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지방의회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이와 같은 청문회 준비를 위해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경상남도 의회를 방문해 담당 팀장과 직원으로부터 해당 상임위가 실시한 경상남도테크노파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현황과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내실 있게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다.

또, 산업경제위원들과 협의하여 실제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경험이 있는 전임 원장과 관련분야 교수 등을 초대하여 재단의 운영실태, 미래비전, 조직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며 테크노파크와 지역업체 간의 상생협력 방안,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 등 테크노파크의 기업지원 역할과 책임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충북테크노파크가 향후 충북도와 어떠한 방향으로 협업하여 충북의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을 추진할 것인지와 이를 통해 충북경제 4% 조기달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의원은 이번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도덕적 검증과 업무추진 능력, 조직 운영계획 등 다양한 의견을 후보자로부터 듣고, 위원회 의원들도 많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의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후보자의 전과기록 증명서가 필요함에도 현재 관련법에는 자신의 전과기록 열람은 가능하지만 이를 타인에게 보여줄 경우 보여준 사람과 이를 본 사람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니 후보자에 대한 전과기록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둘째,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도록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발언·표결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대한민국헌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의회에서 직무상 행한 내용에 대해 면책특권이 주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상 미비점 두 가지가 보완된다면 보다 충실하고 도민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기재,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 편 :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220-5159

방청안내

■ 방청 신청

- 의회사무처(의사담당관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신청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의사담당관실)에서 방청권 교부
의사담당관실 : ☎ 043)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 충청북도의회 인터넷방송 : <http://assembtv.cb21.net/>
- 트 위 터 : https://twitter.com/chungbuk_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